

날짜 2025-02-02(D1) 본문 눅24:44-53
번호 2582 설교 변일국 목사
구분 주일예배, 성찬 찬송 찬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시작 주님 가르치신 기도
찬송 찬20,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기도 권영희 사모
본문 눅24:44-53
설교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
성찬 마26:26-28, 찬230, '우리의 참되신 구주시니'
찬송 찬138, '햇빛을 받는 곳마다'
봉헌 변준석 형제
광고

① 구국(救國)에 힘쓰자

헌법재판소의 지독한 좌편향이 무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시다.

② 체어리티(charity)에 힘쓰자

아주 사소해 보이는 주변 일들부터 하나씩 실천합시다.

헌금기도

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오, 기록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2025년 2월 2일 2월 첫 주일,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인 24장 44절로 53절, 제목은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로 만 2년 2개월간의 누가복음 속뜻 강해의 대 장정을 마쳤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특별히 제게 와닿았던 것은, 주님은 저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 육체로 있어도 천국에 합당한 기록함, 신성함이 가능하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살면 얼마든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네?**’ 깨닫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눈이 무엇을 보며 사는가, 무엇에 시선을 고정하여 사는가에 따라 제 삶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과 세상에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한, 저는 지옥의 영향권을 벗어날 수가 없지만, 오늘 주님처럼 주님과 천국에 시선을 고정하면, 천국의 영향권과 능력으로 주님처럼 살다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목사님이 맨 나중에 권하신 사소한 삶, 곧 ‘**아무리 해도 무기력하고, 열심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소해 보이는 선한 일을 매일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워만 있던 사람은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도 좋겠지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10분이라도 말씀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적과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신 이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오, 주님, 저의 이 작은 첫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